

# 국민의당 경선도 예열...安·孫·千 세몰이

안철수 '전문가그룹' 발족  
손학규, 동물단체 간담회  
천정배, 광주·전남 표심 잡기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레이스 분위기가 서서히 달궂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경선을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당내 대선주자인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전 대표의 23일 서울과 호남에서 활동하며 지지세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안 전 대표가 이날 학계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 모임인 '전문가광장'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전문가 지지 그룹의 외연을 넓혀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7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광장은 분야별 및 지역별로 각종 정책 발굴 및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소수 정예로 운영돼온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광장의 상임대표는 안 전 대표를 후원해온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김만수 예비역 공군 준장(국방), 김태일 노동정치연대포럼 대표(노동),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교육), 이혜주 중앙대 명예교수(문화예술), 조세환 한양대 교수(국토환경), 전근아 연세대의대교수(여성청소년)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다.

안 전 대표는 또 이날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창립대회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혁명·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 등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안철수도 인재영입 국민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지그룹인 기칭 '전문가광장'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내놨다"며 "지금 대선주자 가운데 과거경선과 미래대비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 동물보호단체 '케어'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전 대표는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다"며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람의 권리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동물권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독일은 이미 2002년에 최초로 국가의 동물보호 책임을 헌법에 추가했다"며 헌법 차원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나아가 "조류 독감, 구제역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무능·무지·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다"며 "동물권 확보와 더불어 가족친화적 제로 방역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와 전남에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그는 보해양조 조성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좋은 일자리가 우리 고향을 비롯해 대한

민국에 넘쳐나는 것이 저의 일생의 목표"라며 "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경제정책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지역 평등정부 실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이 노후 30년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족·귀농 지원 ▲노령친화산업 육성 ▲젊은 층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 지방우선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언어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앞서 천 전 대표는 백양사의 방장 지신스님을 예방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와 전남에서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그는 보해양조 조성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좋은 일자리가 우리 고향을 비롯해 대한

# 文 '4차혁명 선도' 유용환 박사 영입

독도 전문가 호사카 교수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만 35세의 나이에 인텔에서 수석매니저 자리에서 온 유용환 박사를 경선캠프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첨단산업과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와 우리 대거영입을 두루 거친 보기 드문 인재"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혁신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제 의지를 이번 영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텔에서 CPU 하드웨어 플랫폼 설계 엔지니어로 10년간 일했다. 만 35세에 인텔 수석매니저를 맡았고 2011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지에서 모바일용 반도체시스템 개

발에 참여했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최연소 상무를 역임했다. 2015년 현대자동차 연구소 이사로 적을 옮겨 자동차 전자시스템 및 미래 자동차 개발 분야에서 최근까지 일했다.

유 박사는 합류 소감에 대해 "실리콘밸리는 인재영입 전쟁 중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 기업의) 불필요한 잔업이나 상명하복식 문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의 전형"이라며 "이런 현실이 바뀌어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18일 영입소식이 알려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도 참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에서 귀환한 독도 전문가로, 동북아 외교 관계 및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안희정·이재명 다시 호남으로

安, 주말 순천·전주 등 1박2일...李, 내주초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에서 선두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에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각각 방문한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첫 순회 경선 투표표지영입 호남이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대세론에 기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판단, 판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보성과 순천, 여수 교동시장 화재현장, 전주 추분문화제 현장 등에 들를 예정이다. 이 시장은 다음주 초 호남을 방문하

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월31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 바로 호남을 찾았고, 지역 지지자들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지율 정체 상태를 겪고 있는 이 시장은 애초 이 시장 바람의 단초를 제공했던 호남 공약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지율 상승을 이끌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측은 "부인 김혜경 씨도 이 시장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호남에 머무르면서 시장, 경로당, 시민단체 등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나라가 좋은 방향 가게 노력"...김종인 '킹' 욕심?

한국당 조찬 포럼 참석...대선 출마 질문에 미묘한 발언  
비문 개헌연대 구심점 주목...'임기단축' 승부수 가능성도

야권발 정계개편의 마지막 변수로 거론돼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23일 직접 대선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출마를 최종 결심한다면 민주당 '탈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개헌을 고리로 하는 조기대선 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 전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조

찬포럼 강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선을 다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노태우 정부 시절 '50대 대통령론'을 꿈꿨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당 개헌과 워크숍에도 참석 "이번 개헌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개헌 문제를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집권이 가능한데

뭐 때문에 개헌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고질적 정당문화의 폐단"이라고 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향해 일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권 안팎에서는 김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선 도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일단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자신이 '비패권시대'로 명명해온 비문(비문재인)연대의 구심점을 자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등 여야를 넘나드는 개헌파들과 '빅텐트'의 불씨를 다시 살려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개헌을 고리로 김 전 대표가 '3년 임기단축 대통령론'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거취 표명 시점으로 약 '일주일 후'를 꼽았지만, 탄핵 심판 결정 시기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주의자인 김 전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 결국 대선 도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를 반영하듯, 김 전 대표는 이날 아침 조찬 포럼을 마치고 나서는 길에 "출마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틀려요 틀려"라며 "나에겐 뉴스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스위스은행에 '박정희 비자금' 900조"

국회 본회의 노용래 의원 "최순실이 세탁...정부 환수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노용래 의원은 23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불법조성된 스위스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조속히 환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노 의원은 "박정희 정권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 자금, 투자 자금으로부터 10~15%, 많게는 20%까지 커미션으로 가로챈 일방적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서는 말한다"면서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말했다.

비자금은 스위스 최대은행 UBS에 여러 나라 명의로 계좌로 입금됐으며, 이후라 전 중앙정보부장이 관리했지만 실 소유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1992년부터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해 지금은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이르고 세탁자금이 9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3.3.(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3.4.(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3.6.(월) 14:10 (고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3.2.(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6.3.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 4.(토)	2017. 1.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 취득 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21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은열뜸,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들이 이용 바랍니다.